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헌태^{1*}

¹부천대학교 간호과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Hyun Tae Park^{1*}

¹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총 1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 정도는 평균 3.59(5점 만점),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3.01(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서지능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15%의 설명력($F=4.629, p=.001^{**}$)을 보였고, 정서지능의 하부영역 중 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표현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설명력이 16.2%($F=7.627, p=.000^{**}$)로 증가하였다. 정서지능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적응과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에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정서지능을 계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as well as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of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04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11 to 13, 2012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s for emotional intelligence 3.59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3.01 were above average.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The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ed adjustment of college life. The strongest predictor on adjustment of college life was emotional recognition and next predictors were in order of empathy and emotional expression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needs to develop the program for improv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for better adjustment of college life in colleg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Adjustment of college lif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주체적이고 책임감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으로서 자신의 정체감과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시기이다. 또한 교양교육과 깊이 있는 진리탐

구를 통해 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기간을 갖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에서 훌륭한 성인으로 발달해야 하는 과도기에 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해가며 자신이 처한 환경과의 적응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보

*Corresponding Author : Hyun Tae Park(Bucheon Univ.)

Tel: +82-10-5475-0732 email: parkht@bc.ac.kr

Received January 14, 2014 Revised (1st January 28, 2014, 2nd February 4, 2014, 3rd February 7, 2014) Accepted March 6, 2014

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감정과 가치관 등을 길러 나간다[3,4].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할 때,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5,6]. 적응에 관한 문제는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전문성과 사회성을 계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는 시점이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인간의 중요한 발달 과제이다.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3,7].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람으로서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대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한 생활로 보낸다[6,8].

대학생활적응의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를 가장 중요시했고 그 외에는 주로 대학생활에 관한 기대, 스트레스 대처방법, 가족응집력, 양육행동, 부모와의 애착 등과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한 연구들이 많았다[9,10-13].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원만한 대인관계,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관련된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등의 개인적,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1,3,4,8,14,15]. 이 중에서 정서지능은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매개요소로서 기능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은 일상생활의 적응, 정신건강, 삶의 만족, 직업적 성공, 신체건강 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12,14-17]. 즉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북돋아 주고, 가치있는 목적을 향해 행동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3,14,15].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여 사춘기의 특성이 일부 남아 있어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 그동안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중·고등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함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학점이수, 시간관리, 다양

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적응해 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8,15,18].

간호학과 신입생의 경우 간호학 학문의 특수성과 학과 공부의 어려움이나 적성 문제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의지라기보다는 최근 높은 취업을 때문에 전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입학한 학생인 경우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과적응이 어려워 전과나 자퇴를 희망하는 부적응 학생들이 있다[15,18]. 이러한 학생들이 새로운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적 적응과 함께 대인관계, 정서적, 사회적 적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지능은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15,16]. 그러나 정서지능과 그 하부요인들이 구체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와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는 간호학과 신입생이 정서지능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1.3 용어 정의

1.3.1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18]. 본 연구에서는 Moon(1997)[14-2차인용]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성

인용 정서지능검사(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1.3.2 대학생활적응(adjustment to college life)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대학생이 생활하면서 요구되는 학업은 물론 대인관계를 포함한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효과적이게 대처하여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는 Baker & Siryk(1984)[7]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도 검사를 바탕으로 Lee(2000)[2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K도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서, 2012년 6월 11일부터 13일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각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게 하였다. Cohen의 Statistical power analysis 표를 이용하여 중간효과 크기인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에서 0.95로 산출한 대상자 수가 85명에서 105명이었다. 이에 기준하여 1학년 학생 총 11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10부가 회수되어 설문지 회수율은 97.3%이었다. 이들 중 응답내용이 누락된 6부를 제외하고 총 10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해 분석방법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 Effect size는 Medium, α error probability 0.05, Power 0.80, Number of predictors 5로 설정하여 필요한 Sample size를 산정한 결과 총 92명의 대상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총 대상자 수 104명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2.3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문결과는 연구결과를 위한 통계분석에만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약속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원하는 학생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대상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측정을 위해 Moon(1997) [14-2차인용]이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 능력 8문항, 자신과 타인의 정서표현 능력 7문항, 감정이입 능력 7문항,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 15문항, 자신의 정서활용 능력 8문항의 5개 하위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총 4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Choi(2008)[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89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16이었다.

2.4.2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측정을 위해 Baker & Siryk(1984)[7]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도 검사를 바탕으로 Lee(2000)[2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가지 하부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각각 5문항씩 구성되어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hoi(2008)[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4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의 상관관계는 각 하부요인에 대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정서지능의 5개 하부요인에 대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여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정서지능의 하부요인을 모두 함께 분석하여 설명력이 높은 변수를 확인한 후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간호학과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은 18세부터 27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8세와 20세가 대부분인 8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21세와 23세 사이의 학생들이 13.4%, 24세에서 27세는 2%였으며, 평균연령은 19.38±1.26세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SD
Gender	Male	19(18.3)	19.38 ±1.26
	Female	85(81.7)	
Age	18~20	88(84.6)	19.38 ±1.26
	21~23	14(13.4)	
	24~27	2(2.0)	

3.2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정서지능의 정도는 평균 3.59±0.28이며,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활용 3.90±0.28, 감정이입 3.62±0.47, 정서조절 3.52±0.42, 정서인식 3.32±0.42, 정서표현 3.16±0.51로서 정서활용이 가장 높았고, 감정이입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총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3.01±0.44이었으며, 영역별로 사회적 적응(3.32±0.60)이 가장 높았고, 대학생활애착(3.14±0.68), 신체적 적응(2.89±0.51), 정서적 적응(2.88±0.72)의 순으로 나타났다.

3.3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정서지능은 총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총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정서인식(.32**)이었고, 그 다음으로 정서표현(.28**)과 감정이입(.28**), 정서조절(.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표현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감정이입은 사회적 적응과 대학생활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정서조절은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서, 정서활용은 학업적 적응과 대학생활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N=104)				
Variables	Mean	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59	0.28	2.84	4.45
- emotional recognition	3.32	0.42	2.00	4.63
- emotional expression	3.16	0.51	1.86	4.57
- empathy	3.62	0.47	2.43	4.71
- emotional regulation	3.52	0.42	1.93	4.67
- emotional use	3.90	0.28	3.25	4.50
Adjustment to college life (total)	3.01	0.44	1.52	4.72
- academic adjustment	2.81	0.58	1.40	4.60
- social adjustment	3.32	0.60	2.00	4.60
- emotional adjustment	2.88	0.72	1.00	5.0
- physical adjustment	2.89	0.51	1.80	4.40
- attachment of college life	3.14	0.68	1.20	5.00

3.4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하부요인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5개 정서지능 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5).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정서지능의 하부요인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의 범위가 .53에서 .91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IF)가 1.08에서 1.8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서지능의 5개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모두 다중회귀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15%의 설명력(F=4.629, p=.001)을 나타내었다[Table 4].

한편 정서지능의 5개 하부영역 중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및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이러한 3가지 변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서지능의 하부요인 중 정서인식이 대학생활적응에 9.5%의 설명력(F=11.767, p=.001)을 나타내었고, 정서인식과 감정이입을 같이 분석하였을 때에는 12.8%(F=8.541, p=.000)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표현을 모두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설명력이 16.2%(F=7.627, p=.000)로 더 증가하였다.

[Table 3] Correlation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N=104)

Emotional Intelligence	Adjustment of College life					Total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emotional adjustment	physical adjustment	attachment of College life	
	r	r	r	r	r	r
emotional Recognition	0.37**	0.38**	0.16	0.17	0.12	0.32*
emotional expression	0.36**	0.17**	0.22*	0.11	0.15	0.28**
empathy	0.19	0.25**	0.13	0.07	0.33**	0.28**
emotional regulation	0.26*	0.24*	0.06	0.09	0.17	0.23*
emotional use	0.21*	0.07	0.04	0.02	0.20*	0.15
Total	0.42**	0.35**	0.18	0.15	0.28**	0.38**

[Table 4]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by method of all possible subsets (N=104)

Emotional Intelligence	Adjustment of College life		
	Standard-ized β	t	p
emotional recognition	0.202	1.985	0.050*
emotional expression	0.215	2.265	0.026*
empathy	0.228	1.915	0.050*
emotional regulation	-0.040	-0.322	0.748
emotional use	0.070	0.735	0.464

Adjusted R Square=0.150, F=4.629, p<.001

[Table 5]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djustment of College life by method of stepwise selection (N=104)

Emotional Intelligence	Adjustment of College life		
	Standard-ized β	t	p
Model 1. emotional recognition	0.322	3.430	0.001
Adjusted R Square=0.095, F=11.767, p<.001			
Model 2. emotional recognition	0.267	2.803	0.006
empathy	0.210	2.206	0.030
Adjusted R Square=0.128, F=8.541, p<.001			
Model 3. emotional recognition	0.204	2.087	0.039
empathy	0.217	2.319	0.022
emotional expression	0.213	2.259	0.026
Adjusted R Square=0.162, F=7.627, p<.001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과 신입생이 정서지능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 정도는 평균 3.59±0.28(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평가한 Jung & Chung(2012)[15]의 연구(정서지능 평균 3.3점)와 간호학과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평가한 Shin(2012)[17]의 연구(정서지능 평균 3.4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서지능의 하부 영역별로는 정서활용이 평균 3.9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감정이입(3.62), 정서조절(3.52), 정서인식(3.32), 정서표현(3.16)의 순이었다.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정서적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지능의 하부요인 중 정서활용은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를 해결할 때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주어진 문제의 성격이 잘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은 정서인식과 표현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의 정서를 보다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여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적절히 반응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여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19, 21]. 간호학생이 전문직 간호를 수행하려면 문제해결력과 대상자를 이해하는 감정이입이 중요한데 본 연구결과 정서지능 중 정서활용과 감정이입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학업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간호학과 신입생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는 정서지능을 갖추어 간호대상자를 잘 이해하여 학업적 성취와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해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 3.01 ± 0.44 (5점 만점)으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하부요인별로 사회적 적응(3.32), 대학생활애착(3.14), 신체적 적응(2.89), 정서적 적응(2.88), 학업적 적응(2.8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평가한 Jung & Chung(2012)[15]의 연구에서 평균 2.9점, Park 등(2009)[12]의 연구에서 2.9점인 것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Baker & Siryk(1984)[7]은 대학생활적응이란 학업 생활과 대인관계나 학과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교우관계에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은 아직 구체적인 전공과목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애착을 갖고 있으며 대학 친구들과 사회적 공동체로서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적응을 잘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대상자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정서지능의 하부영역은 정서인식(.32**)이었고, 그 다음으로 정서표현(.28**)과 감정이입(.28**), 정서조절(.23*)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Jung & Chung(2012)[15]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과 순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Elias 등(2007)[16]과 Lee(2005)[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정서지능의 5개 하부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15%의 설명력을 보였고, 특히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및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표현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설명력이 16.2%로 증가하였다. 이는 Jung & Chung(2012)[15]과 Choi(2008)[14]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그러나 Choi(2008)[14]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정서조절, 정서인식의 순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은 일치하였고, 위 연구의 정서조절 대신 감정이입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서지능을 활용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정서지능의 하부요인 중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ee[4]는 대학생활은 대학생이 환경에서 받는 긴장이나 감정적 대립이 없이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역할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및 감정과 가치관, 인성을 배양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Choi[14]도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변인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심리적인 변인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개인의 내적 심리적 변인인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치므로 위의 결과들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16.2%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지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서지능의 하부요인 중 정서표현, 정서조절, 감정이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학과 신입생이 향후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결과, 정서지능을 활용하여 향후 간호학 전공 학습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신입생으로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적응능력이 향상되어 대학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이 정서지능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정서지능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적응과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해나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생활방식과

폭넓은 대인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와 정서지능의 하부요인 중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D. L. Coffman., T. D. Gillian.,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pp.53-66, 2002.
DOI: <http://dx.doi.org/10.2190/BV7X-F87X-2MXL-2B3L>
- [2] S. K. Kim.,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 pp. 215-237, 2003.
- [3] E. A. Kim.,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4] E. W. Lee., "Impacts of the affective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5.
- [5] H. J. Cho., "A study of the impa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separation individuation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5.
- [6] M. L. Toews., A. Yazedijian,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41, pp. 891-900, 2007.
- [7]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6, pp.877-891, 1984.
- [8] S. Y. Park.,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 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 [9] E. J.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rearing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03.
- [10] H. Y. Lee.,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s", *Journal of North East Asian Cultures*, 14, pp. 337-355, 2008.
- [11] J. F. Mattanah., G. R. Hancock., B. L. Brand.,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pp. 213-225, 2004.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1.2.213>
- [12] B. N. Park., J. S. Park., J. R. Lee., "Factor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among nursing junior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45, pp. 153-164, 2009.
- [13] J. Y. Shin.,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0.
- [14] J. H. Choi.,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8.
- [15]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 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al Health Nurs*, 21(3), pp. 188-19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16] H. Elias., R. Mahyuddin., N. Noordin., "Academic adjustment among second year students in Malaysian univers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4, pp. 237-252, 2009.
- [17] E. J. Shin.,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myung University, 2012.
- [18] M. H. Kim., "A study on ego-identi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7(1), pp. 55-64, 2008.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8.38.1.55>
- [19]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pp. 185-211. 1990.
DOI: <http://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20]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and career plans", master's theses,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21] E. J. Aust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pp.403-414, 2005.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5.01.017>

박 현 태(Hyun Tae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9월 ~ 2005년 12월 :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Post Doc, Nursing &
Health Informatics Certificate
- 2003년 8월 ~ 2004년 8월, 2005년
12월 ~ 2008년 2월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및 책임
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
임연구원
- 2008년 3월 ~ 2013년 8월 : 신홍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3년 10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교육, 간호관리, 간호정보